

News

예보, 우리금융 잔여지분 3.6% 매각 추진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 17일 정규장 마감 후 우리금융지주 지분 3.6% 매각을 위한 수요예측 나서... 지난 2월과 유사한 수준의 지분 매각이 국내외 기관투자자 상대로 성사 예상
수요 여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잔여 지분 전량 매각 추진 가능성도 존재... 작년 말 우리금융 지분 9.33% 매각 후 최대 주주 지위를 우리사주 조합에 내줘...

신한금융지주, 아시아신탁 완전자회사 편입

뉴시스

신한금융지주, 아시아신탁의 잔여 지분 40% 인수... 이번 잔여 지분 인수로 아시아신탁은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 열고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 예정... 그룹의 부동산 사업부문 역량 확대 및 원-신한 관점의 그룹사 협업 활성화 기대 설명

도 넘은 '중도해지' 장사...상환수수료는 높고, 해제이자는 낮고

아이뉴스24

5대 은행, 변동형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평균 0.7%로 집계... 반면 정기예금의 경우 6개월 중도 해지시 평균 0.22%의 이율 지급
중도상환수수료 간극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0.80%까지 벌어져... 인터넷전문은행은 받지 않아... 금융위,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손보겠다 입장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 추가로 빼돌린 정황 포착

동아일보

614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약 50억원 추가 빼돌린 정황 포착...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건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70억원 중 50억원 가량 추가 횡령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건 공장 부지를 국내 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계약금... 검사 과정에서 해당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흘러들어간 정황 발견

피부미용 받았는데 "실손 있으시죠?"...백내장 이어 보험사 타겟되나

서울경제

상위 5개 손보사 합산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2021년 8조 1,181억원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세...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가장 가팔라...
최근에는 특히 피부 관련 실손보험 지급이 늘고 있어... 업계 관계자 "제2의 백내장 될 가능성 높다"... 리우에이드.키오머3에 대한 청구 까다롭게 하자 NDA플러스 등 찾아내...

삼성생명, 금리 급등에도 채권을 대거 내다판 이유는

시사저널이코노미

삼성생명, 올 1분기에도 채권을 적극적으로 처분해 생보사 빅3 가운데 채권 처분이익이 유일하게 증가... 보험·투자영업 부문 어려움에 채권매각 카드 꺼내든 것으로 풀이
올 1분기 채권 처분순이익(개별기준) 1,1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 그간 실적 여유 있어 꺼려왔으나 이번에는 실적에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 제기

'절대 강자였다'...증권사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순위 '엎치락뒤치락'

시사저널이코노미

올 1분기 국내 증권사 5곳(미래에셋, 키움, 삼성, NH투자, 한투)의 외화증권 거래대금은 107조 1,459억원 기록... 전년동기대비 -24.8% 감소 수치
글로벌 증시 환경 뒤바뀐 상황 속에서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거래대금 순위도 크게 변동... 키움증권 1위, 한투 2위, 미래에셋 3위, 삼성 4위... 증권사들의 경쟁 더 치열해질 것 전망

현금 확보해야...본사 사옥 매각나선 증권사

현대경제신문

증권사들,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사 사옥 매각... 신금투, 서울 여의도 사옥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KKR컨소시엄 선정
매각 금액은 6,000억원으로 장부가격과의 차익은 4,000억원 수준... 미래 신사업 투자여력 확대 필요 때문... 현재 본사 사옥 보유 중인 곳은 한투와 키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